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대호호 농업용수공급(당진지역) 협의회 개최

✎ 이봉호 기자 | ㉠ 승인 2025.04.20 14:11



농어촌공사당진지사,농업용수공급관리협의회개최사진(사진 농어촌공사당진지사 제공)

[충청매일 이봉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(지사장 주은규)는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대호 간척지 안전영농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, 지역농업인 대표(석문면, 고대면, 대호지면 쌀전업농회, 당진시 농민회)와 농업용수공급 관리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.

지난 2022년 대호간척지 경작 농업인들이 벼 염해피해 문제를 제기해 농어촌공사에서 염도가 높은 용수를 공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.

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염해피해 기준 이하의 정상적인 용수를 공급 했으며, 용수공급 과정

에서 기온상승, 바람, 증발산량 증가 등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설명해 왔다.

또 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안전한 영농이 가능토록 2022년 9월 '대호호 농업용수공급 관리'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이번 협의회에서 간척농지 염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용수공급 시기, 염해 피해 주의 알림문자를 수시로 제공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토록 논의됐다.

한편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간척지 벼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, 농업인들과의 정보 공유 등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간척지 경작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밝혔다.



이봉호 기자 rokmc437@ccdn.co.kr